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4편 중생과 회개

제3권 제3장 1-25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같은 죄에 넘어지고 계속 회개해야 하나요?

 흐름 한눈에

칼빈은 성경이 복음 전체를 '회개'와 '죄 사함' 두 가지로 요약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둘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먼저 그는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 나무에서 열매가 나듯 믿음에서 자라 나온다고 밝힙니다(1-4절). 이어서 회개를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로 정의합니다. 그 내용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생이라고 설명합니다(5-9절). 그다음 거듭난 신자에게도 죄의 뿌리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으므로 이 땅에서는 죄 없는 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10-15절). 또 회개의 열매는 겉모양보다 마음과 삶 전체의 변화이고, 회개는 평생 계속되며, 용서를 사는 공로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16-20절).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진리를 알고도 악의로 복음 전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회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는다는 위로로 마칩니다(21-25절).

 절별 정리

회개는 믿음의 열매임: 이에 대한 몇 가지 오류에 대한 논의. 1-4

칼빈은 앞 장에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삶에 실제로 무엇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 전체를 '회개'와 '죄 사함'으로 요약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이고, 죄 사함은 값없이 받는 화해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 둘을 빼고 믿음을 말하면 알맹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칼빈은 회개를 바로 알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더 선명해진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내 것으로 인정받는 일(전가)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사람은 자연히 옛 삶을 고치려 애쓰게 되므로, 회개는 늘 믿음을 뒤따르고 믿음에서 납니다.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칼빈은 그들이 회개의 힘을 모르고 알팍한 논리에 끌린 것이라고 봅니다.

1. 복음의 요약은 회개와 죄 사함
2. 둘 다 그리스도가 주시고 믿음으로 받는다
3. 회개는 열매처럼 믿음에서 자라 나온다
4. 거룩한 삶과 값없는 칭의는 붙어 있다
5.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라는 주장은 오류

누가복음 24:47

복음을 '회개와 죄 사함'으로 요약하는 근거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5:31

그리스도가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높임 받으셨다는 근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2. 회개와 믿음의 관계

반대편은 단어 순서를 근거로 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나중에 말씀하셨고, 바울도 회개를 믿음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들이 단어 순서에만 매달려 뜻을 놓쳤다고 답합니다. 실제 뜻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이며, 회개할 이유가 은혜와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이 성취한 이사야 예언도 그 앞에서 “위로하라”는 복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믿음이 생기고 한참 지나야 회개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아야 진지하게 회개할 수 있고, 그것을 알려면 먼저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시초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만 참된 의로움이 있고, 용서를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 신자에게 정해진 날수 동안 참회 행위를 시킨 뒤에야 성례에 참여시키는 일부 재세례파(16세기에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신앙고백 후의 세례를 주장한 급진 개혁 운동)와 예수회(16세기에 세워진 로마 교회 수도회)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회개는 평생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1.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가 본뜻이다
2. 회개의 동기는 은혜와 약속이다
3. 믿음과 회개 사이에 시간 간격은 없다
4. 용서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5. 회개는 며칠짜리가 아니라 평생의 일

마태복음 3:2

반대편의 근거. 칼빈은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로 읽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

예수님의 첫 설교도 같은 구조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마태복음 3:3

요한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 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40: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원래 예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1-2

그 외침이 위로와 복된 소식으로 시작함을 보여 줌

¹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²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130:4

용서가 있기에 경외한다는 핵심 근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호세아 6:1

용서의 소망이 돌아오게 하는 자극제임을 보여 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거시오 우리를 치셨으나 파멸어 주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다.”

3.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예부터 성경에 충실하려던 몇몇 학자들은 회개를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죽이는 일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 생기는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이때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이것을 보통 '통회'라고 부릅니다. 살리는 일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는 위로,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칼빈은 이 두 단어를 바르게만 해석하면 회개를 잘 표현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을 두려움이 가라앉은 뒤에 오는 행복감 정도로 보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가 보기에 살리는 일은 거듭남에서 나오는 열심, 곧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자기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 회개 = 죽이는 일 + 살리는 일
2. 죽이는 일: 죄를 깨달은 슬픔과 두려움
3. 살리는 일: 은혜를 보고 다시 일어남
4. 살리는 일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다
5. 거룩하게 살려는 열심이 살리는 일이다

(직접 인용 없음)

이 절은 옛 학자들의 용어를 소개하고 평가할 뿐 구절을 들지 않음

4.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

또 어떤 이들은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보고 회개를 두

그리스도를 치료약과 위로와 피난처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회개의 예로는 가인, 사울, 유다를 듭니다. 이들은 죄의 무게를 인정하고 진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복수하는 심판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회개의 예로는 히스기야, 니느웨 사람들, 인구조사 뒤와 간음 뒤의 다윗, 오순절에 마음이 찢린 사람들, 그리고 슬피 울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은 베드로를 듭니다. 이들은 깊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칼빈은 다음 절에서 이 설명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이 구분이 믿음을 회개 안에 집어넣는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율법의 회개: 두려움에 갇혀 끝남
2. 복음의 회개: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
3. 가인·사울·유다는 심판자 하나님만 봤다
4. 다윗·베드로는 울면서도 용서를 기대했다
5.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느냐

창세기 4:13

가인: 죄의 무게만 느낀 '율법의 회개' 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무엘상 15:30

사울: 같은 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27:4

유다: 죄를 인정했으나 소망 없는 회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히스기야: 두려움 속에서 울며 기도해 신뢰를 회복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 38:2

히스기야 이야기의 병행 기록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 3:5, 9

니느웨: 베옷과 재로 진노를 돌이키시기를 구함

요나 3: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요나 3: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사무엘하 24:10

다윗: 인구조사 죄를 고백하며 바로 용서를 구함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2:13, 16

다윗: 간음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기다림

사무엘하 12: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태복음 26:75

베드로: 슬피 울었으나 소망을 버리지 않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62

베드로 이야기의 병행 기록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의 정의와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 5-9

5. 회개의 정의

칼빈은 앞의 설명들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따로 말하므로, 믿음을 회개 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믿음 없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처럼, 둘은 떼어 놓을 수 없지만 섞어서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때로 '회개'를 믿음까지 포함한 회심 전체라는 뜻으로 쓴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돌아섬·되돌아옴'에서, 헬라어로는 '마음·생각의 바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진짜 방향을 트는 것이며, 옛 자아를 죽이는 일과 성령을 따라 새로 사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삶 전체로 회개를 증명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릅니다.

1. 회개와 믿음·뱀 수 없지만 구별된다

3. 회개 =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섬
4.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두려움
5. 내용은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살기

사도행전 20:21

회개와 믿음을 따로 말해 둘을 구별하는 근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마태복음 3:2

(참조) “돌아오라”와 “회개하라”가 같은 뜻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사무엘상 7:2-3

역사서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을 회개로 묘사

² 궤가 기랴트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³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복음 3:8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6:20

바울도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요구함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로마서 6:4

(참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킴

칼빈은 정의를 세 부분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입니다. 이것은 겉 행동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옛 본성을 벗어나야 새 본성에 맞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회개를 촉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고,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칼빈은 예레미야 4장을 가장 좋은 설명으로 꼽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 가족을 베라는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악을 뽑지 않으면 아무리 의를 좇아도 헛수고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미워하시므로 꾀를 부려도 소용없습니다. 이사야는 금식 같은 의식은 열심히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불의는 내려놓지 않는 위선을 꾸짖습니다. 칼빈은 여기서 거짓 없는 회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1. 회개는 겉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부터
2. 옛 본성을 벗어나야 새 행동이 나온다
3. '마음의 할례' = 가장 깊은 곳의 수술
4. 하나님은 두 마음을 미워하신다
5. 의식은 열심, 이웃엔 불의 = 가짜 회개

에스겔 18:31

회개 촉구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함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신명기 6:5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표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12

같은 표현의 반복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30:2, 6, 10

같은 표현의 반복

신명기 30:2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신명기 30: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10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레미야 24: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 10:16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가장 깊은 감정까지 다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6

마음의 할례를 다시 언급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레미야 4:1, 3-4

마음 밭을 갈고 마음 가족을 베라: 회개의 본질을 보여 주는 대표 구절

예레미야 4: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4:3-4 ³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⁴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야고보서 1:8

(참조)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경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겨남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박히면, 죄인은 편히 쉴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를 촉구할 때 심판을 자주 함께 말하고, 이미 내린 벌을 보여 주며 더 큰 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벌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성은 게으르고 완고해서 부드럽게 달래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치로 내리치듯 엄한 방법을 쓰십니다. 두려움이 회개의 시작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덕이 많은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상관없으면 세상에서는 칭찬받아도 하늘에서는 가증합니다. 의의 가장 주된 부분은 하나님께 마땅한 권위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그 영광을 훔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1.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회개가 시작
2. 성경은 회개와 심판을 자주 함께 말한다
3. 경건한 근심 = 죄 자체를 미워함
4. 둔한 본성엔 엄한 경고가 필요하다
5. 하나님 없는 덕은 하늘에서 가증하다

예레미야 4:4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불처럼 탄다: 회개와 심판의 연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신명기 29:19 이하

이미 내린 벌로 더 큰 벌을 경고하는 예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8. 회개: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셋째로, 회개는 육체를 죽이는 일과 영을 살리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은 백성 눈높이에 맞춰 단순히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두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라는 요구는 악으로 가득한 육체(하나님을 거스르는 타락한 본성) 전체를 없애라는 요구입니다. 타고난 성향과 결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육체의 모든 욕구가 하나님과 원수이므로, 율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의와 공의와 자비의 열매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먼저 그쪽으로 끌려야 하므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경이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인다'는 말 자체가 옛 본성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고합니다.

2. 첫걸음은 자기 본성을 부인하는 것
3. 육체의 욕구는 하나님과 원수다
4. 새로운 마음은 성령이 불어넣으신다
5. '죽인다'는 말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

시편 37:27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죽이기와 살리기를 단순하게 표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사야 1:16-17

악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배우라: 두 부분의 구체적 예

¹⁶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¹⁷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8:7

(참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근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에베소서 4:22-23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권면

²²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²³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9. 회개와 중생

죽이는 악과 살리는 악을 두 단 그리스도께 찬양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의에 맞는 새 생명으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합니다. 그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일그러지고 거의 지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하루나 한 해에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더디게, 평생에 걸쳐 진행되며, 그 싸움은 죽을 때에야 끝납니다. 스타필루스(개신교에서 로마 교회로 넘어간 논쟁가로 알려진 인물)는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정의하자, 이 땅의 상태와 하늘의 완성된 상태를 혼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칼빈은 무엇을 정의할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을 닮을수록 형상이 더 빛나고, 그 목표를 향해 평생 회개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 죽이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
2. 살리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
3. 칼빈에게 회개 = 중생
4.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5. 회복은 평생, 때로는 아주 더디다

로마서 6:6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죽이는 일의 근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후서 3:18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 회복의 목표와 점진성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서 4:23-24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10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새사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4:4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며 근거로 든 구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4:24

(참조) 스타필루스 논쟁에서 칼빈 정의의 근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자가 성화를 체험하나, 이생에서는 죄 없는 완전함이란 없음. 10-15

10. 중생자와 육체의 정욕

하나님의 자녀는 중생으로 죄의 굴레에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육체가 주는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싸울 거리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훈련받고 자기 연약함을 배웁니다. 칼빈은 건전한 옛 저자들 모두가 이 점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도 악의 불씨가 남아 정욕을 일으키며, 성도들도 때로 음욕·탐심·야망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로 아우구스티누스(4~5세기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를 듭니다. 차이는 용어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무질서한 욕구를 '연약함'이라 부르고, 의지가 동의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칼빈은 하나님의

'죄'라 부른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칼빈은 그가 사실상 신자에게 죄책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1. 중생해도 싸울 거리는 남는다
2. 남은 죄는 훈련과 겸손의 도구다
3. 아우구스티누스: 동의할 때부터 죄
4. 칼빈: 율법에 어긋난 욕구 자체가 죄
5. 성도에게 죄는 죽을 때까지 남는다

(직접 인용 없음)

이 절은 옛 저자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비교함

11. 죄의 법이 제거되었으나 그 흔적은 남아 있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씻어 흠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죄의 본질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책(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 씻겼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중생으로 죄의 '다스림'은 무너지고 성령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다스리지 못할 뿐 여전히 신자 안에 머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법은 제거되었지만, 남은 흔적은 신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흔적 때문에 신자가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칼빈은 그 근거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하는 바울의 로마서 7장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율법의 첫 계명을 듭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는 생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만큼 사랑이 모자란 것이고, 곧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그저 죄의 '불씨'라고만 부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1. 씻긴 것은 죄책, 죄의 흔적은 남는다
2. 죄는 왕좌에서 쫓겨났지만 아직 산다
3. 정죄받지 않는 건 오직 긍휼 덕분

4. 남은 죄는 율법에 어긋난 욕구 자체가 죄

에베소서 5:26-27

교회를 씻어 흠 없게 하심: 칼빈은 '죄책 제거'로 해석

²⁶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²⁷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6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8:2

(참조) 죄의 법에서 해방됨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6

로마서 7장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근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신명기 6:5

마음·뜻·힘을 다해 사랑하라: 남은 욕구도 죄라는 결정적 근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37

예수님이 같은 계명을 첫째로 확인하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그러나 죄가 다스리는 일만을 못하게 될 뿐, 여전히 그들 속에 거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12.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창조주가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 정죄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 본성에 새기신 성향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인 한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항하는 격렬하고 무법한 충동입니다. 타락으로 모든 기능이 망가져서 무질서와 무절제가 모든 행동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욕구가 악한 이유는 '본성적'이어서가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이고, 무질서한 이유는 부패한 본성에서는 순수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파(사람이 은혜 없이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본 5세기 펠라기우스의 추종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죄'라는 말을 조심했을 뿐입니다. 죄책만 제거되고 죄의 법은 남는다고 한 그의 말을 보면 실제 가르침은 칼빈과 거의 같습니다.

1. 창조된 욕구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2. 정죄 대상은 무질서한 충동이다
3. 욕구가 악한 건 '무질서'해서다
4. 부패한 본성에선 순수함이 안 나온다
5. 아우구스티누스와 실제 차이는 작다

(직접 인용 없음)

이 절은 논리적 반론에 답하고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석함

13. 성도들의 죄악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율리아누스 반박』 (펠라기우스파 율리아누스를 반박한 책) 2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법은 중생의 성례에서 죄책이 제거되어 용서받지만, 신자가 맞서 싸워야 할 욕구를 계속 일으키므로 몸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4세기 밀라노의 감독)가 이를 '불법'이라 불렀다고 소개합니다. 같은 책 5권에서는 더 분명하게, 육체의 무질서한 정욕은 영혼의 다스림을 거스르니 '죄'이고, 불순종의 대가이니 '죄의 형벌'이며, 따르는 사람을 오염시키니 '죄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설교 41편에서 그는 바울이 “죄가 있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면서, 살아 있는 동안 죄는 지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지배만은 거부하라고 권합니다. 반대편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들어, 욕심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야고보가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말할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악한 의도조차 죄가 아니게 되며, 오히려 악한 행동을 정욕의 열매라 부르는 것이 정욕도 악하고 정죄받을 것임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1. 아우구스티누스도 정욕을 '죄'라 불렀다
2. 정욕은 죄이자 형벌이자 원인이다
3. “있지 못하게”가 아니라 “지배 못 하게”
4. 살아 있는 동안 죄는 지체에 남는다
5. 야고보서 1:15는 행위의 죄를 말한다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름: 남은 정욕도 '불법'이라는 근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12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남되 다스리지 못함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 일부 재세례파의 헛된 망상에 대하여

당시 일부 재세례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육체의 욕망을 억제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충동만 따르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 정절과 음란의 구별은 아담의 저주에서 온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해방하셨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선악의 구별을 없애는 신성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살인·간음·술 취함·다툼이 아니라 사랑·온유·절제·진실을 일으키며, 옳고 그름을 분별해 절제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성화) 주어졌고, 이는 무질서한 욕망을 누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씻음 받아도 몸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날마다 싸우며 전진하고 스스로를 살려야 합니다. 바울조차 '사탄의 사자'로 고통받으며 약함 속에서 능력을 체험했고 자기 안의 영과 육의 갈등을 알았는데, 바울보다 더 나아가지 못한 우리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 칼빈의 결론입니다.

1. “성령만 따르면 죄 없다”는 망상이다
2. 성령은 방종이 아니라 절제를 가르치신다
3. 성령의 첫째 목적은 거룩하게 하심
4. 씻음 받아도 연약함은 남는다
5. 바울도 싸웠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다

고린도후서 12:7

바울도 '사탄의 사자'로 고통받았다는 근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고린도후서 12:9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 연약함 속의 성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6 이하

(참조) 바울 안의 영과 육의 갈등

⁶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15. 고린도후서 7:11이 가르치는 회개

바울은 회개와 관련해 일곱 가지를 듭니다. 간절함(조심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입니다. 칼빈은 이것들이 회개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단정하지 않고 내용만 풀어 줍니다. 간절함은 하나님께 죄지었음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사탄의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변증은 잘못을 부인하거나 줄이는 변명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듯 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분함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의 떨림이며, 사모함과 열심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정입니다. 벌함은 부끄러움과 탄식처럼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인데, 칼빈은 여기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심이 사람을 삼켜 버리면 절망에 빠지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며,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시는 회개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베르나르(12세기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의 권면을 빌려, 죄에 대한 근심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지 말고 때때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와 쓴 속에 꿀을 섞듯 하라고 권합니다.

3. 자기에게 엄격하되 절제가 필요하다
4. 지나친 근심은 절망, 사탄의 함정
5. 쓴 쑥(자기 성찰)에 꿀(은혜)을 섞어라

고린도후서 7:11

회개의 일곱 모습을 나열한 본문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7:10

일곱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2:3

낙심하여 지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근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근심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의 열매: 거룩한 삶, 죄의 고백과 씻음, 회개는 평생 계속됨. 16-20

16. 회개의 열매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사랑을 향한 사랑, 구원 받은 영혼의 기쁨과 감사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실 때 십계명의 둘째 돌판 (제5~10계명, 이웃에 대한 의무)을 자주 떠올리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먼저 마음의 더러움을 정죄한 뒤 겉 증거를 다루십니다. 선지자들은 의식으로 하나님을 달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엘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와 야고보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가 그 예입니다. 야고보는 겉(손)을 먼저 말하고 근원(마음)을 밝힙니다. 한편 탄식, 눈물, 화려했던 삼가기, 쾌락 끊기 같은 겉 행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상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바울이 말한 '벌함'에서 생깁니다. 칼빈은 옛 저자들이 회개를 이런 행위에 두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지나쳤다고 평가합니다. 육체를 제어하는 일을 너무 칭송해 더 중요한 것을 흐렸고, 그런 행위를 소홀히 하면 교회의 온유함에 맞지 않게 엄하게 벌했다는 것입니다.

1. 열매: 경건, 사랑, 삶 전체의 거룩함
2. 율법을 기준으로 삶을 비춰 보라
3.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4. 겉 행위는 상한 마음의 자연스런 표현
5. 옛 저자들은 겉 행위를 너무 강조했다

요엘 2:13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회개는 속에서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야고보서 4:8

손(겉)과 마음(근원)을 함께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7:11

이들을 구하는 자는 회개 행위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7. 회개의 표시인 금식과 애통

요엘서 등에서 금식·울음·재를 말한다는 이유로, 이것들을 회개의 주요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요엘 2장에서 회개의 본질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입니다. 금식과 애통은 언제나 따라야 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 큰 재난이 예고된 특별한 상황에 맞는 표현입니다. 재판관 앞에 선 피고가 초라한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베헌과 재는 당시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재난으로 치시는 듯할 때 오늘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금식과 애통을 촉구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도 마음을 찢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리라 하신 말씀도 슬픔의 때의 공적 금식을 가리키며, 경건한 사람의 평소 삶은 검소와 절제가 배어 있어 일종의 '평생 금식'이어야 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1. 금식·애통은 회개의 본질이 아니다
2. 본질은 마음을 다해 돌아오는 것
3. 금식은 재난 같은 특별한 때에 맞다
4. 공동 금식을 촉구해도 마음이 먼저
5. 평소 삶은 검소와 절제의 '평생 금식'

요엘 2:12-13

금식은 상황적 표현, 본질은 마음을 찢고 돌아옴

¹²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¹³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태복음 9:15

신랑을 빼앗길 때의 금식: 슬픔의 때와 공적 금식의 연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8. 일상적 회개와 특별한 회개

금식이나 애통 같은 겉 행위를 '회개'라고 부르면, 칼빈이 정의한 참뜻(하나님께로 돌아섬)에서 벗어납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를 혐오함을 천사와 세상 앞에 보여 주는 공적 고백일 뿐입니다. 회개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이 늘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사로이 죄를 고백하는 일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회개의 필수 부분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뿐 아니라 오래 묻어 둔 큰 잘못까지 떠올려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최근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모태에서부터 부패했음을 고백했고, 젊은 날의 죄까지 기억하며 긍휼을 구했는데, 이는 책임을 흐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크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 칼빈은 회개를 둘로 구별합니다. 우상숭배나 큰 죄에서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특별한 회개'와, 본성의 부패 때문에 모든 신자가 평생 해야 하는 '일상적 회개'입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 됐다”며 옛 자아를 죽이는 일에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1. 금식·베옷은 회개의 공적 표현일 뿐
2.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3. 묻어 둔 옛 죄까지 꺼내 고백하라
4. 특별한 회개: 큰 죄에서 돌아섬
5. 일상적 회개: 모든 신자의 평생 과제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벧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0:13

같은 표현의 병행 기록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벧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11:31

스스로 살피면 심판받지 않음: 자기 점검과 고백의 필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51:3-5

다윗이 최근 죄와 함께 모태부터의 부패를 고백

³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⁴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⁵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25:7

젊은 시절의 죄까지 기억해 달라고 구함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2:21

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특별한 회개의 예

또 내가 다시 간 때에 내 하나님이라 부르 너희 앞에서 나츠니까 두려워하고 또

19. 회개와 죄 사함

복음의 요약이 회개와 죄 사함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동시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서 '회개하라'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옛 자아를 죽이며 새로 나기를 사모하라는 부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믿음으로의 부름이며, 그 천국은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고,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전파될 회개와 죄 사함으로 요약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전부가 부패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구속이 되셔서 값없이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죄 사함이 선포됩니다. 둘 다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대상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므로 칼빈은 편의상 죄 사함을 회개와 구별해 다룹니다.

1.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신다
2. '회개하라' = 죄를 깨닫고 새로 나라
3. '천국이 왔다' = 믿으라는 부름
4. 예수님 첫 설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5. 둘 다 믿음으로 받지만 구별해 다룬다

마태복음 11:10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

예수님의 같은 선포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3

같은 표현의 병행 기록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15

은혜 선언 → 회개 요구 → 믿음 요구의 순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4:26, 24:46-47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요약: 고난·부활·회개·죄 사함

누가복음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46-47 ⁴⁶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⁴⁷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구속이 되심: 죄 사함 선포의 내용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20. 성도의 회개는 평생토록 계속됨

회개의 시작인 죄에 대한 미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중에 탄식하고 무거운 짐을 진 가련한 죄인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면 평생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회개로 부르셨고, 복 주러 오셨지만
악에서 떠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사함을 제시하실 때 보통
회개를 함께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용서를 얻는 공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키려는 목적으로 긍휼을 베풀기로 하셨기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라봐야 할 목표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철학자의
삶에 대한 플라톤의 말에 빗대어,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가 완전히 죽고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실 때까지 계속되는 육체 죽이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불만에 갇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큰 유익을 얻은 것이며,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이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 그리스도는 짐 진 죄인에게 오신다
2. 부르심은 늘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3. 회개는 용서의 조건이지만 공로는 아니다

4. 그리스도인이야 할 때 평생의 은혜 죽이기

이사야 61:1-3

메시아가 상한 자와 슬퍼하는 자에게 오심

¹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²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³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5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4:18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자기 사명으로 선포하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태복음 9:13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회개로 부르심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하시니라

사도행전 3:26

복 주시려고 보내신 목적이 악에서 떠나게 하심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31

(참조) 회개를 주시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사야 56:1

구원이 가까우니 의를 행하라: 구원 약속과 회개 요구의 결합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사야 59:20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 55:6-7

악인이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심

⁶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⁷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나 용서가 없는 죄들. 21-25

21. 회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며 놀라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오라고 권하시지만, 그 권면이 효력을 내는 것은 중생의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 나은 본성으로 바꿀 수 없으며, 새로 지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엄밀히 말해 회개가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 있다면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히브리서는 고의적인 배교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바티아누스파(3세기 노바티아누스를 따른 엄격파로, 박해 때 배교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는 이 구절들을 근거로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내용이 너무 거칠다며 히브리서를 가짜 편지로 여겼습니다. 칼빈은 히브리서에 사도의 정신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 모독만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읽어야 하므로, 연약함에서 나온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오직 마귀에 사로잡힌 듯한 필사적 광기의 죄만 예외라고 결론 내립니다.

1. 회개는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
2. 권면의 효력은 성령께 달려 있다
3.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4. 경외하는 마음은 성령이 일하신다는 표시
5. 연약함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린도후서 7:10

회개를 이루는 근심도 하나님에게서 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2:25-26

하나님이 회개를 주실지 모르니 온유하라

²⁵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²⁶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에베소서 2:10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생 전체가 하나님의 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9:20

회개는 구속자의 오심과 떼려야 뗄 수 없음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사야 63:17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버림받은 표시로 여기며 탄식함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조르 격이한지 않게 하시나이까 위하거대 주의 조드 고 주의 기어이

히브리서 6:4-6

고의적 배교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음

⁴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⁵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⁶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29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자들에 대한 경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26-27

짐짓 죄를 범한 뒤에는 다시 속죄 제사가 없음

²⁶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²⁷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마태복음 12:31-32

성령 모독만 사함 받지 못함: 히브리서 해석의 기준

³¹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³²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28-29

같은 말씀의 병행 기록

²⁸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2:10

같은 말씀의 병행 기록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22. 사함 받지 못하는 죄

칼빈은 성령 모독이 정확히 무엇인지 따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용서를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형제가 받은 은혜를 시기하는 것이 성령 모독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칼빈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칼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구별하신 것은, 몰라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과 알면서도 양심을 거슬러 공격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스데반의 말을 당해 낼 수 없으면서도 끝까지 저항한 일부 유대인과,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왕의 힘이라고 비방한 바리새인이 그 예입니다. 바울이 믿지 않을 때 몰라서 행했기에 긍휼을 입었다고 말한 것도, 지식과 불신이 결합하면 용서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1. '죽을 때까지 완고함'이란 정의는 부족
2. 성령 모독 = 알면서 악의로 진리를 거부
3. 몰라서 하는 공격은 용서받을 수 있다
4. 예: 스데반을 막은 자들, 바리새인
5. 바울은 몰라서 했기에 긍휼을 입었다

마태복음 12:31-32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32

인자 거역과 성령 거역의 구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10

(참조) 같은 구별의 병행 기록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29

(참조) 같은 말씀의 병행 기록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6:10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당하지 못하면서도 저항한 자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마태복음 12:24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비방함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디모데전서 1:13

바울은 무지할 때 행했기에 긍휼을 입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23. 사함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완전한 배도의 상태에 있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한두 번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전면적으로 등을 돌려 구원을 내던지는 상태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 전체를 악의로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노바티아누스파는 히브리서의 '타락'과 '죄 지음'을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율법을 어기는 일반적인 죄로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앞에서 말한 은혜들을 하나하나 뒤집는 숨은 대조법이 있으므로, 개별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배도를 말한다고 봅니다. 곧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뒤에, 의도적으로 그 빛을 끄고 은사를 뱉어 버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짐짓'(고의로)이라는 말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도 그리스도가 성도의 죄를 계속 속하시느라 제물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른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1. 한두 번의 넘어짐이 아닌 전면적 배도
2. 방탕한 삶이 아니라 복음 전체의 거부
3. 노바티아누스파는 '타락'을 잘못 읽었다
4. 핵심 단어는 '짐짓', 곧 고의로
5. 그리스도의 제사를 버리면 다른 제사는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6:6

'타락'은 개별 죄가 아니라 전면적 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26

'짐짓'이 고의적 불경을 드러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4-5

받은 은혜들을 뒤집는 대조법의 본문

⁴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⁵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24. 사함 받지 못하는 죄 범하는 자들은 회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소멸시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피해 오는 사람이 용서를 거부당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칼빈은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이 돌아와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회개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불경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히 눈머는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팔고 나중에 눈물로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스가랴의 경고도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름'과 '눈물'은 참된 회심이나 기도가

약속과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도망치는 맹목적 고뇌를 회심이나 기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1. 돌아오는 자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들에겐 회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3. 에서의 눈물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4. 절망 속 고뇌는 기도와 다르다
5.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약속은 확실

히브리서 12:16-17

에서가 눈물로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함

¹⁶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¹⁷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스가랴 7:13

불러도 듣지 않으리라: 참된 부르짖음이 아닌 경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스겔 18:21-22

돌이키는 악인은 반드시 산다: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으심

²¹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²²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거짓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면, 일시적 두려움으로 베옷을 입었던 아합이 벌을 늦춰 받은 일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위선자를 한동안 봐주시는 일이 있어도 진노는 여전히 그 위에 있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시려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칼빈은 아합이 살아 있는 동안 벌을 느끼지 않았을 뿐, 저주는 그의 집안에 남았고 그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에서도 눈물로 구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세상의 복은 얻었지만, 영적 기업은 야곱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으로 부르짖은 이스라엘에게도 자주 재앙을 누그러뜨리셨는데, 이는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나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벌을 늦추시는 것이 언제나의 법칙은 아니며, 때로는 위선을 더 엄하게 벌하십니다. 이런 예들을 보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격려받아 삶을 고치고, 경고를 비웃는 교만한 사람은 더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1. 아합의 유예는 용서가 아니라 본보기
2. 에서는 땅의 복만 받았다
3. 거짓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4. 유예가 항상 있는 법칙은 아니다
5. 진심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받는다

열왕기상 21:27-29

아합의 검비와 형벌 유예: 거짓 회개 문제의 사례

²⁷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²⁸여호와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²⁹아합이 내 앞에서 검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검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7:38-40

에서가 땅의 복은 받았으나 영적 기업은 잃음

³⁸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⁴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시편 78:36-37

거짓된 부르짖음에도 재앙을 누그러뜨리심

³⁶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³⁷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시편 78:57

이스라엘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할 같이 빗나가서

오해와 반론

용어

중생(重生)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으로, 칼빈은 이 편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평생에 걸쳐 회복되는 과정 전체를 가리켜 씁니다.

회개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칼빈은 믿음과 구별하지만 떼어 놓지는 않습니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회개의 두 부분입니다. 죄로 기우는 옛 본성을 꺾는 것(죽이는 일)과,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는 열심이 자라는 것(살리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고 마음 깊이 아파하며 뉘우치는 것으로, 옛 학자들이 '죽이는 일'을 부르던 말입니다.

전가(轉嫁)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ی 값없이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욕

이 편에서는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질서한 욕구 전체를 말합니다.

죄책(罪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칼빈은 신자에게서 죄책은 씻겼지만 죄의 흔적은 남는다고 봅니다.

성화(聖化)

성령께서 신자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배도(背道)

진리를 알고 받아들였다가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 버리는 것입니다.

유기(遺棄)된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의 신학 용어로, 이 편에서는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 자를 가리킬 때 씁니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회개는 믿음보다 앞선 준비 단계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믿음에서 자라는 열매입니다.
-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 삶 전체가 하나님께

- 거듭난 신자에게도 죄는 죽을 때까지 남아 있으므로,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 계속됩니다. 다만 그 죄는 더 이상 신자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 회개는 용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겉모양보다 마음과 삶의 변화가 핵심이며, 지나친 자책으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 진리를 알고도 악의로 복음 전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회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